변화의 트리플 메가 트랜드

-공정거래위원회이남기위원장발표-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소공동롯데호텔사파이어룸에서 회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문화일보 초청 회원간담회가있었다.

광고주협회 민병준 회장은 인사말을통해 "광고주, 매체사가힘을합쳐 힘든시기를극복해야한다"며 "문화일보가국민들의사랑을받는격조높은신문으로발전할수있도록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며, 문화일보또한기업들이더욱발전하고 그럼으로써국가경제가회복될수있도록기업에게유익한신문이되어달라"고전했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연사였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20년 공정거래위원회 회고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내용을정리한것이다.

인사말을 전하는한국광고주협회 민병준 회장

문화일보 김정국사장

경제운영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해야

세계가급변하고있다. 변화에빨리적응한개인, 기업, 국가는 그만큼 앞서가는 것이고, 변화의 대처방안도없이현실에 안주하는개인, 기업, 국가는퇴보할수밖에없다. 이러한 변화를 "트리플 메가 트랜드"라명명하고세가지트랜드로나누어 말하고자 한다. 공정거래 경쟁정책은 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이나일본에서도평상시에는도입되기어렵다.

기업은 생태적으로 경쟁정책을 들여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정책으로는 정책 수립이 상당히 어렵다. 세계적 변화가 크지 않고 상품교역이 주를 이루던 GATT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정책 없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세상이바뀌었다. 서비스, 지적재산권, 특히자본이국경을넘나드는현재이런 경쟁정책없이시스템을운영하던국가들은하나같이지난번IMF와같은위기상황을맞았다. 총체적인 경제운영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이런경제운영시스템을변화시켜적응해왔던노력이 지난3년간꾸준히실시했던4대부문 구조조정이다. 변화에

적응하지못하면이같은일을되풀이하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

전방위적 경쟁시스템, 품질 가격으로 시장에서 신뢰 얻어야

변화의트리플메가트랜드중첫번째는경쟁이전방위적으로일어나고있다는것이다. 우방국이나동지의개념이없는것이다.

전방위적경쟁의첫번째원인은세계화다. 모든나라가단일한상품교역권이된다. 다시말해우리나라가세계여러나라에진출해얼마든지교역을할수있지만반대로우리시장도내어놓아야하는것이다. 이는경쟁이치열해질수밖에없는가장큰원인이된다.

두 번째는 IT산업의 발전이다. 시공간의패러다임 자체가바뀐디지털시대에IT산업은경쟁양상자체가종전과다르다. 이른바 스피드 시대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못하면시장에서뒤떨어지는상품밖에안된다.

동종연합체경쟁시스템으로의변화도달라진점이다. 자동차제조를예로들면부품업체는부품업체들끼리, 완제품조립업체는조립업체들끼리연합체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그룹대그룹이경쟁을하게되는양상을띄는것이다.

한편 상품의 시장확정 개념이불분명해지면서이른바 퓨전 경쟁시스템의 형태도 생겨났다. 사무기기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팩스, 프린터, 복사기 각각 구매하던 것이 이세가지기능이합쳐진제품이나옴으로써경쟁시스템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시장과 상품의 구분이불분명해지고뒤엉키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것이다.

전방위적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없는세번째원인은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있다.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전방위경쟁체체를만든다. 실례로건설업종의경우허가제에서신고제로바뀐이후건설회사의숫자가엄청나게증가했다. 먹을빵은늘어나지않고 그대로인데그것을더여러명이나눠먹다보면아우성이일어날수밖에없는것이다.

건설업계가살아나기위해서는구조조정, 인수합병등무슨 방법으로든그숫자가반으로줄어야한다. 전방위적인경쟁시스템을한마디로하면힘센자가살아남는장군의법칙이다. 품질과가격으로경쟁해시장에서신뢰를얻는방법외에는묘안이없다.

정부 역할 축소, 소비자 역할 증대

트리플메가트랜드의두번째변화는정부비즈니스모델은더이상성공할수없다는것이다. 정부의산업정책이각자가맡은부분만을생각하는칸막이정책이다보니다른산업 상관없이 내가 맡은 부분만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그러나더이상이런산업정책은계속될수없다. 앞으로는모든것을하나의잣대로재야한다. 시장에서는 자기의 특성을살려마음껏뛰되하나의경쟁정책잣대를가지고사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트랜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 대한인식을바꿔야한다.

이제는 소비자의 위치가완전히바뀌었다. 과거에는 소비자 보호라는 말처럼 소비자의 위치가 피동적이었는데 반해 지금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주체로 시장에서의 주인 역할을하고있다. 독점시장에서 벗어나 경쟁체제로 이전하는 현 상황에서 품질과가격, 그리고서비스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되는것이다. 소극적인 소비자 정책에서 벗어남은물론 모든기업이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만생존의길이열린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약력

1969년	제7회 행정고시 합격
1982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총괄과 과장
1990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국 국장
1991년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국장
1993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00년	제11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환담을 나누는민병준회장과 이남기 위원장

근본적 문제해결에 초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가금년도경제정책중가장큰비중을두고 있는것이 상시적구조조정에차질이없도록하는것이다.

약 34조원에달하는상호지급보증이모두없어졌고, 부당 내부거래에서도 우량기업의 에너지를 시장에서 없어져야할 자회사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있겠지만결국에는이것이우리가나아가야할길 이다.

국내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은 명확히 잡혔다.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주저 없이 정착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년을돌아보건대비유하자면이렇다. 지금까지 20년동안 되풀이되었던것은지뢰밭에서지뢰가터졌을때 병원에데려 가치료하기에급급했었다.

그러나금년부터는지뢰밭의지뢰를원천적으로캐내는작 업을하겠다는것이포괄적인시장개선대책이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가장신경쓰는부분이시장이라는밭에서마음껏 뛰어놀아도지뢰가터져다치는일이없도록하겠다는것이 다.

합리적 경쟁계획, 국제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

다음으로중소기업과소비자에게직접적인이익이가는경 쟁계획을수립하겠다는것이다. 이른바일괄규제시스템으로, 시정명령을 하더라도하나로 묶어 - 반복적으로일어나는문 제들을 일정기간동안모아서 - 상대방과 피해 문제를자율적 으로처리하도록하는방침이다. 즉, 시간과비용을낭비하지 않도록시스템을구축하는데노력하고있다.

바야흐로 경쟁법이 국제적 기준 하에서 돌아가고 있다. 국가적손해를막기위해서는양국이다이렉트로협상해문 제를해결해야한다. 이런부분에있어서도신경을많이쓰 고있다.알려진대로우리기업이미국이나 EU에서경쟁법 위반으로상당액의벌금을부과받았고, 현재도서너개업종 에서미국과EU의조사를받고있다. 더이상경쟁법이국내 에서만 저촉되는것이아니다. 우리나라도수입량이큰일 부업종에대해현재조사를벌이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국내에만국한되지않는다. 외국기업에대해서도국 익에위반된다면처벌할수있다는것이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원칙이다.

정리 · 이수지